

### '평양에서 태극기를!'... 역도 선수단 출국



평양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10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역도연맹 소속 광주은행과 보성군청 등 7개 클럽팀 선수 22명이 참가하며,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 박인비 “재도전! 캘린더 그랜드슬램”

### 5대 메이저 예비양 챔피언십 내일 개막 신지애·최나연·리디아 고 등과 샷 대결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캘린더 그랜드슬램'(한 시즌에 메이저 대회 4승 기록을 세우는 것)에 재도전한다.

12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오프사부아주 예비양 챔피언십의 예비양 마스터스 골프장(파71·6428야드)에서 열리는 예비양 챔피언십이 그 무대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유럽 여자프로골프 투어(LET)가 함께 주관하는 이 대회는 올해부터 메이저 대회로 승격됐다. 총상금은 325만 달러(약 35억3000만원)가 걸려 있어 5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오픈과 함께 최대 액수를 자랑한다.

박인비는 올해 앞서 열린 네 차례 메이저 대회 가운데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 US오픈을 차례로 휩쓸었다. 8월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놓쳐 메이저 연속 기록은 깨졌지만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한 해에 메이저 대회에서 4승을 거두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

남녀를 통틀어 세계 골프 사상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1930년 보비 존스(미국)가 유

일하다. 이번에 박인비가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존스 이후 무려 83년 만에 대기록을 다시 쓸 수 있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해 올해 2연패를 노린다.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박인비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를 운영한다면 대회 마지막 날 우승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메이저 승격 후 첫 대회인 예비양 챔피언십에는 세계 랭킹 상위 40명, 올해 LPGA 투어와 LET 우승자, LPGA 투어 상위 랭킹 상위 선수 등 120명이 출전한다.

박인비와 루이스 외에 최나연(26·SK텔레콤), 신지애(25·미래에셋),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 서희경(27·하이진로) 등 한국 선수들과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카리 웨브(호주),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 평산산(중국) 등 상위 랭커들이 실력을 겨룬다. 지난달 L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우승한 뉴질랜드 교포 아마추어 리디아 고도 세계 랭킹 상위 선수 자격으로 대회에 나선다. /연합뉴스



백용환



이홍구

## 순위싸움 밀려 난 KIA '안방마님'부터 리빌딩

### 신예포수 백용환·이홍구, 선배 김상훈·차일묵에 도전장



신예 포수들이 안방싸움에 불을 붙였다. 순위 싸움에서 밀려난 KIA는 내년 시즌을 위한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빌딩의 출발점은 '안방'이다.

포수는 KIA에서 오랜 시간 정채원던 포지션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도루 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고민이 쌓였던 자리다. 침체했던 포수 자리가 최근에는 가장 뜨거운 포지션이 됐다. 장총고 1년 선후배 사이인 두 신예 포수 백용환(24)·이홍구(23)가 안방에 불을 붙였다.

2013시즌 '투키' 이홍구가 먼저 기회를 얻었다. 장총고를 거쳐 단국대를 졸업한 이홍구는 지난 5월 31일 처음으로 1군에 호출됐다.

주전 포수 김상훈이 우측 장판지 파열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이홍구에게 처음 기회가 왔다. 두 차례 1·2군을 오간 이홍구는 선배들의 부상과 신예 포수 육성 방침에 따라 조금씩 입지를 넓히면서 최근에는 라인업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홍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이홍구'라는 애칭과 어울리는 강한 송구다.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레이저 송구를 하면서 도루왕 김중호도 잡아내는 등 상대의 발을 묶고 있다.

백용환에게도 뒤늦게 기회가 왔다. 2008년 고졸 신인인 백용환은 시원한 타격으로 주목을 받았던 포수. 2010년 시범경기에서는 두 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향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가을 제대한 백용환은 9월 1일 엔트리 확정으로 1군에 올라왔다. 1군 데뷔 타석에서 첫 안타를 때려낸 백용환은 타격 잠재력과 함께 칠백 볼로킹이 돋보이는 유망주다.

두 사람의 성장과 잠재력으로 분류하자면 수비형 이홍구, 공격형 백용환이다.

김지훈 배터리 코치는 "두 선수의 장점을 합하면 롯데의 강민호가 된다"고 웃으며 "이홍구는 어깨가 최대 장점이 다. 송구가 좋은 선수다. 백용환은 볼로킹이 좋고 타격에서도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고 평가했다.

김 코치가 염하게 키우고 있는 두 어린 포수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경험이 부족한 만큼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 설망이다. 시간과 인내가 두 선수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홍구는 "처음보다는 경기 하는 게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무조건 주자를 잡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송구는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환에게도 이번 가을은 배움의 시간이다.

백용환은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자신있는 부분은 볼로킹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많은 준비를 해서 그런지 자신 있다"며 "타석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후회 없이도 배울 내 스승을 하고 있다. 자신있게 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안CC컵

### 드림투어 12차전

### 김소이 10언더파 정상

김소이(19)가 10일 무안 컨트리클럽(파 72·6417야드)에서 열린 'KPGA 2013 무안CC컵 드림투어 12차전' 우승을 차지했다. 드림투어 5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한 이후 2번째 우승컵이다.

무안 컨트리클럽이 주최하고 KPGA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김소이는 최종합계 10언더파와 134타(68-64)로 정상에 올랐다. 보기 없이 4언더파를 쳐 1라운드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김소이는 선두와 3타 뒤진 채 1번터 서(OUT)코스에서 출발, 버디 6개를 더 추가했다.

1라운드 선두였던 김민선(18·CJ오쇼핑)은 서연정(18·요진건설)과 함께 최종합계 9언더파와 135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에 머물렀다.

KPGA 2013 무안CC컵 드림투어 13차전은 오는 10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K리그 여성파워

### 국제대회 섭렵한 베테랑 김경민·박미숙 심판 투입

K리그에 여성파워가 뜬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김경민(33·사진), 박미숙(30) 여성 국제심판을 K리그 챌린지에 투입한다. 대한 축구협회에서 실시한 남자 심판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두 심판은 국제 대회까지 섭렵한 베테랑이다.

김경민 심판이 지난 9월 FC 안양과 경찰축구단 경기를 통해 먼저 데뷔전을 치렀다.

김경민 심판은 FIFA(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2007·2011), FIFA U-20 여자월드컵(2010), FIFA U-17 여자월드컵(2008·2010), 런던 올림픽(2012)에서 부심으로 뛴 10년 경력의 노련한 국제심판. 2011년과 2012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여자 부심상(2011)과 AFC(아시아축구연맹) 여

자 부심상을 수상했다.

박미숙 심판은 올림픽 지역예선(2008), AFC U-16 여자 챔피언십 예선(2012), AFC U-19 여자 챔피언십 대회에서 실시한 남자 심판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두 심판은 국제 대회까지 섭렵한 베테랑이다.

심판 전용 무전기 도입, 배정 비공개, 사후징계, 동영상 교육, 체력테스트 확대 등 쇄신작업을 하고 있는 연맹은 여성 심판 도입을 통해 관중 정확도와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K리그에 여성 심판이 뛰는 것은 임은주 현 강원 FC 사장(1999~2003년) 이후 두 번째이며 부심은 처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